



모두가
스타
『어쨌든
튀는
10代』

개성표현적극적 : 「재미있는 삶」 추구

『10대야말로 진짜 신세대』라고
20대 신세대들은 한결같이
이들(10대)을 눈여겨 본다. 신신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어른들 눈에 공부외에
아무것도 할일이 없는 어린아
이로 보아졌지만 한꺼풀만 뜯
추어보면 기성세대가 모르는
놀라운 세계가 숨어있다는 것
이다.

『내 속에는 부모님이 생각하
는 나보다 더 커다란 내가 있
어있어요.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할 뿐이지요. 그래서 할수 없
이 부모님 앞에서 아이인척
해버립니다』(18·고교3년 남
학생)

『세상이 변하는걸 못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기성세대예요. 그

『화성』은 아무 생각 말고 공부만 하라는 데, 그림 이들을 아부 생각 없이 일만 하시오 우리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요』(14층화 2년 여 화성)

누키즈가 말하는 그들의 첫째가는 특질은 『모두가 뛰는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성질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저마다 스타기

래서 움직이는 우리들을 가르막이 되고 해요. 우린 그러다는 이유만으로 부끄럽게 억압을 받고 있어요』(15층화 3년 여 화성)

중고교 祝祭 성황

질을 가지고 있다. 이성친구 많은 것, ভাল노는 것, 만화주인공을 잘그리는 것, 친구들을 잘모시는 것 등의 '개성'만으로도 스스로 상당한 자부심을 갖는다.

그래서 李智惠安(14층)의 경우 3년(은)두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카메라와 마이크를 틀어대면 스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를 이라고 했다. 친구들 사이에도 자기자신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인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성적과 공부에 질투려있는 중고생들과 교에서도 웃음소리가 그칠새가 없다. 예술제와 방송제를 축제는 다 하라 축하할 점이다. 화생록 다

를이 일정을 하는가 하면 이성 친구들이 꽃을 들고 밑에 다친다.

그런데 공부잘하는 학생을이 다방면에서 뛰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부벌레들은 그저 책상앞에만 붙어있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모습의다. 게다가 이들을 대체로 의모도 빼어나고 충실함이신의배결을 가지고있다. 그래서『요즘神은 공평하지 않는다』는 말도 생겨났다.

『머리 좋고 공부잘하는 애들이 더 잘 놀아요.공부를 잘한다는것은 무엇인가를 할줄수 있는능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하고싶

은 일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니까 놀라가도 공부할 때는 하는 거죠」

서울고교 그분사은은 「선세이 선언」의 원인 崔在道君(1733년)의 설명이다.

수는 시험에 喜悲

게다가 단순한 기력보다 사고력과 창의성이 중시된 수학은 력시 학력본에 진짜 튀는 학생이 제 실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다하고 마다 드러나고 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시문제나 문화예술행사「영동한」에 관심을 보인 학생

청소년 세계민속축제에 참가한 중고생들. 톡톡 튀는 뉴카즈의 개성을 기성세대와 제도교육이 획일화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사진위)

연습에 열중하는 서울고 그룹사운드「센세이션」. 똑똑한 학생들이 놀기도 잘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진아래)

『배우고 젊어서만이
평생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믿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살고 싶
어요!』

개인을 실적 가치관이 두드러지
는 것이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丁賢惠양
(16층화3년)은 꼭 인기배우
가 되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
했다.

중학생 이성교제-멧내기 예사

가 그 나
감행해야 했
게 누리고 있
화 몇 내기
이 선교제
부모들이 만
어도 국민화
짜기(가
자친구)를
오히려 없
더 크다고
미팅을
요즘 소개
주는 것)이

그러나 리적인 생각들을 S고
은 「공식적」
다들이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아 하겠다.
TV 텔레
경기 판
만드시
과하지
같다고
지은 「간
미팅

뉴키즈 사이에 「MBC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드라마 사춘기가 그것으로 PC통신 하이텔의 「사춘기코너」에는 「사춘기」를 보기위해 야간학습도 빠졌다. 빠진 보람이 있다』는 시청소감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뉴키즈가 자기를 표현하는 문화는 우리때와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바람에 걸린 점



드라마 「사춘기」의 한 장면. 왼쪽이 동민이역의 鄭俊군。

“우리애기 담은 드라마 신나요”

M-TV 「사춘기」 주연 鄭俊군

가장 우민들을 가로
해요. 우민이 아니라
우민하게 억압
(15호) 3년 여
친을 가지고 있다. 이성 친구 많
은 것, 잘 노는 것, 만화 주인공을
잘 그리는 것, 친구들을 잘 웃기는
것들의 「개성」만으로도 스스로
상당한 자부심을 갖는다.

교차점 성향
아무 생각 말고 공부만
그럴 어쩔을 모르
일만 하거나, 우
있는 생명체라고
(2년) (화선)
가랄하고 그들의 첫
친구! 모두가 된
라는 것이다.
좋은 친구들로 나
대로 저마다 스타가
있을 거라고 있다. 이성 친구 많
은 것, 잘 노는 것, 만화 주인공을
잘 그리는 것, 친구들을 잘 웃기는
것들의 「개성」만으로도 스스로
상당한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서, 李龍馬(14호)의 여
중 3년은 「우리는」이 때 어
「곳에서」도 카메라와 마이크
를 들이대면 스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했다.
친구들 사이에도 자기 자신을 확
실히 표현하는 사람이 인기
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성취와 공
부에 지칠 때는 중학교와 고
교에 오는 소리가 그칠새가 없
다. 예술제와 방송제 등 출제는
대중적 재빨리 점이다. 학생들 그
를 열광을 하는가 하면 이성
친구들이 꽃을 들고 밀어닥친
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의
다들 면에서 「새로운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공부벌레들
은 그저 책상 앞에만 붙어 있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모습의
다. 게다가 이들은 대체로 외
모도 빼어나고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즘 젊은 공룡하지 않다는 말
도 생겨났다.
「미리보고 공부하는 애들이
더 잘 돌아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거든.」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
한 곳에 관심을 보여온 학생
들이 학교 내성적에 비해 열
과 창의성이 중시된 수학 등
특수 분야에 진짜 뛰는 학생
이 제 실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학교마다 드러나고 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시사문제나 문화예술행(영웅
한 곳에 관심을 보여온 학생
들이 학교 내성적에 비해 열
과 창의성이 중시된 수학 등
특수 분야에 진짜 뛰는 학생
이 제 실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학교마다 드러나고 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시사문제나 문화예술행(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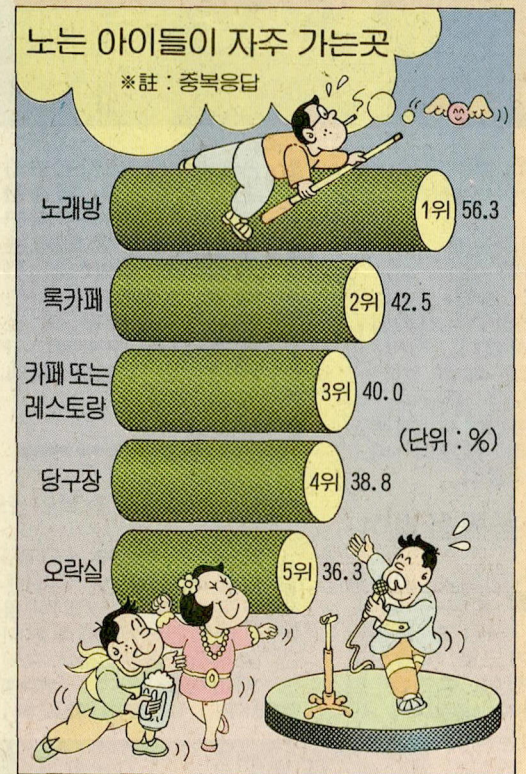
스타 어쩔은 튀는 1세대

개성표현 적극적... 「재미있는 삶」 추구



청소년 세계민속축제에 참가한 중
고생들. 특색 있는 뉴키즈의 개성
을 기성세대와 제도교육이 획일화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위)

연습에 열중하는 서울고 그림사운
드 「센세이션」. 똑똑한 학생들이 놀
기도 잘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
다. (사진아래)



뉴키즈가 쓰는 말중에 「노
는 아이」라는 용어가 있다.
중고생들에게는 「공부
에 관계없이 하고 싶은
것(운동 노래 춤 이성교제
등)을 하는 애들」부터 「가
출 비행을 저지르는 애들」
까지 폭넓은 의미다.
청소년대화의 광장이 최
근 서울시내 남녀중고생 3
백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한 「노는 아이들의 세계」
에 따르면 24%가 나는 노
는 아이라고 밝혔다.
노는 아이들이 자주 가
는 곳은 노래방 록카페 카
페나 레스토랑 당구장

중고생 24% “나는 노는 아이”

중학생 이성교제-멋내기 예사

90년대의 뉴키즈는 기성세대
가 그 나이 때 「복숭아」를 걸고
감행해야 했던 일들을 자연스럽
게 누리고 있다. 이성교제나 영
화 멋내기 흡연 등 「그것이다」
이성교제를 막거나 적정하는
부도들이 많지만 중학생만 되
고도 무뎠고 교복을 벗고 화장화
의 「미모」를 「나」(나)와
자신(나)을 갖는 것은 보통이며
오해 없는 친구들의 고민이
더 크다고 한다.
미모를 즐기는 계층에서는
요즘 소개팅(약혼)을 소개시켜
주는 것(나)나 현명(길)을 가다

그러나 「오늘」 애들이 우리 때
같지 않다고 탄식하며 기성세
대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어
회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1
세기를 살아가는 뉴키즈들 19세
기식 교실에서 교육하는 것은
바로 20세기의 기성세대인지도
모른다. (金順德)

이같은 뉴키즈의 지나치게 감
각적 충동적인 문화와 이기적
타산적 성향을 우려하는 기성
세대가 적지 않다. 삼일초(영유
화)의 이성교제를 막고 안전하
다는 비판도 크다.
그러나 「오늘」 애들이 우리 때
같지 않다고 탄식하며 기성세
대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어
회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1
세기를 살아가는 뉴키즈들 19세
기식 교실에서 교육하는 것은
바로 20세기의 기성세대인지도
모른다. (金順德)

그러나 기본적 인물은 보
장돼야 한다는 현실적이고도 실
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울고 李海龍(18·3년)
은 「공식적으로」 남을 좋아하는
동생이 주는 직장을 원한다고
말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
연히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을
해야 한다. 재미도 있고 시간
도 자유로우며 소득도 높은 직
업: 자격증 가진 전문직을 갖고
싶다고 했다.
TV 텔레비전 張德洙(13·
경기 광명시 광명중 1년)은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대학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아
직은 「간판」을 중시하기 때문
이란다.
미팅-현팅-폰팅
이같은 뉴키즈의 지나치게 감
각적 충동적인 문화와 이기적
타산적 성향을 우려하는 기성
세대가 적지 않다. 삼일초(영유
화)의 이성교제를 막고 안전하
다는 비판도 크다.
그러나 「오늘」 애들이 우리 때
같지 않다고 탄식하며 기성세
대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어
회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1
세기를 살아가는 뉴키즈들 19세
기식 교실에서 교육하는 것은
바로 20세기의 기성세대인지도
모른다. (金順德)

뉴키즈 사이에 「MBC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드라
마 「사춘기」가 그것으로 PC
통신 하이텔의 「사춘기코너」
에는 「사춘기」를 보기 위해
야간학습도 빠졌다. 빠진 보
람이 있다」는 시청소감도 심
심치 않게 올라온다.
「뉴키즈가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는 우리 때와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바탕에 깔린 정



드라마 「사춘기」의 한 장
면. 왼쪽이 동민이역의 鄭
俊均.

“우리애기 담은 드라마 신나요”

M-TV 「사춘기」 주연 鄭俊均

서는 마한가치라고 생각합
니다. 그것을 자극적으로 요
란하게 전하지 않고 좀 구식
으로, 따뜻하게 그리는 것이
호응을 받는 것 같군요」
MBC 프로덕션 張龍馬 P
D (36)는 자신의 중학교 시절
경험과 일기를 바탕으로, 요
즘 뉴키즈의 문화를 접목해
드라마를 만든다고 말했다.
주인공 동민이역을 맡고 있
는 鄭俊均(14·서울봉천중 2
년)은 「감독님이 우리들 말
투와 생활을 그대로 살려주
어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냥 노는 것 같다」고 했다.
교실을 들어갈 때 문으로가
아니라 창문을 뛰어넘는 것
이라든지 「선생님 오신다」가
아니라 「됐다」라고 하는 것 등
은 중학생연기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장면이다.
드라마속에서 「육체와 조화
를 이루지 못하는 나의 성숙
한 내면을 우리가 꼭 조차 이
해하지 못하는구나」하고 한
숨쉬는 것도 실제 상황과 같
다고 했다. 다음과 같은 독백
으로 끝나는 그 드라마의 끝
장면도 鄭俊均의 속내 그대로
다.
「그래. 내가 아는 인생은 14
년 동안 보고 느껴온 것... 아
직은 그 정도 뿐인 것 같다...」